



“산전수전’ 배역에 멘탈 강해진 느낌”

서현, 종영한 MBC ‘시간’ 서 내면연기 눈길
“소녀시대 멤버들 응원이 큰 힘 됐어요”

“시간”을 하면서 “절집 멘탈”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지난달 종영한 MBC TV 수목극 ‘시간’을 오롯이 이끌어간 가수 겸 배우 서현(본명 서주현·27)을 최근 만났다.

아직 ‘시간’의 설지현을 완전히 떠나보내지 못한 듯한 그는 설지현을 연기하며 “많이 성장했다”고 말했다.

극 중 설지현은 여동생과 엄마의 죽음, 남자 친구의 배신 등 온갖 비극을 겪고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 노력한다.

“대본을 처음 받고 하기로 결정했을 때 ‘보통 집중력으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슬픔의 깊이가 가슴이 안 됐거든요. 얼마나 깊은 내면 연기를 해야 하는지 고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설지현으로 살았어요. 실 때도 그 끈을 놓으면 연기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사람도 거의 안 만났고 부모님 집에서 잠시 나와서 따로 지냈어요. 그래서 많이 우울했죠. 하지만 그런 감정도 역할로 녹여냈어요.”

서현은 “후회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작품의 주제 자체가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 모두 유한한 시간 속에서 각자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선택에 따라 다른 삶을 살

잖아요. 어려운 만큼 매력 있는 캐릭터였고,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힘든 순간은 많았지만 ‘괜히 했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었어요. 거기서 포기했으면 정말 후회했겠죠. 끝까지 해낸 것은 제 끈기를 테스트한 것 같아요. 끝나고 몸살에 걸려 일주일 동안 앓았지만요.”

가장 힘들었던 장면으로는 마지막에 설지현이 생중계를 하며 모든 진실을 밝히는 장면을 꼽았다.

“쉬운 장면은 없었지만, 그 장면은 대본 수정이 많이 돼서 생방송처럼 촬영했었어요. 대본 8페이지가 제 독백이었는데 대본이 한 시간 전에 나온 거예요. 국어책 읽는 것처럼 대사만 달달 외울 수도 없었고요. 보조출연자들도 많았고 지나가면서 구경하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이걸 제대로 못 하면 망하구나’ 싶었어요. PD님이 그때 너무 밉더라고요. (웃음) 다행히 한 번에 해냈어요. 엄청 벅했죠.”

‘시간’은 남자 주인공 천수호 역의 김정현이 갑자기 중도 하차하는 사태를 맞았다. 때문에 ‘시한부의 남자가 자신이 연루된 사건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여자를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이야기’라는 기존 멜로 서사가 설지현이 복수에 성공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서현은 “대본이 수정돼 완전히 생각하지 못했던 흐름으로 갑자기 바뀌게 되는 경험도 하게 됐다”며 “혼자 극을 끌고 가야 한다는 책임감이 크긴 했지만, 시청자들도 여성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여자 위주 드라마여서 의미가 있

었다”고 강조했다. 서현은 중도 하차한 상대 배우 김정현에 대해서는 “아프다고 하시니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을 아꼈다.

힘든 여정을 버티게 해준 데는 소녀시대 멤버들의 응원도 큰 역할을 했다.

“언니들이 모두 커피차를 보내줬어요. 다들 모니터도 해주고 응원을 많이 해주었어요. 함께 한 시간이 15년 정도 되거든요. 가족 같아요. 막상 함께 있을 때는 소중함을 잘 못 느끼는데 떨어져 있으면서 애들한테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서현은 지난 4월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에 사회자로 뽑혀 ‘국가픽’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그는 “평양 방문은 인생에서 다시 할 수 없을 것 같은 경험이다. 아직도 평양에 다녀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전엔 ‘딱딱한 사람들일 것 같다’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에서 먹은 평양냉면은 자극적이지 않고 생소한 맛이였다”며 “맛있게 먹었다”고 웃었다.

서현은 차기작으로는 설지현과 다른 밝은 역할을 해보고 싶다고 한다.

“이번에 멜로를 하려고 하려다 못했으니까 멜로나 로맨틱 코미디를 해보고 싶어요. (웃음). 당분간은 솔로 앨범을 작업하면서 다음 작품을 고민해보려고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연기를 하고 싶어요.” /연합뉴스



도경수·남지현, 호홉 ‘척척’ 배경·설정 기존 사극과 달라

도 비속비슷한 로맨스 사극인 줄 알았는데 두 경을 열어보니 달랐다. 상승세가 무서운 tvN 월화극 ‘백일의 낭군님’ 이야기다.

3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밤 9시 30분 방송된 ‘백일의 낭군님’ 시청률은 9.2% (이하 유료가구)로 집계돼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이윤(도경수 분)과 홍심(남지현)의 로맨스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기억을 잃은 채 원적으로 살아가고 있던 이윤이 자신이 원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내용이 그려져 시청률을 끌어올렸다.

‘백일의 낭군님’은 시청률 5.0%로 출발해 2회에서는 6.2%로 뛰어올랐다. 추석 연휴 주춤했으나 지난 1일 방송이 8.0%, 2일에는 9.2%를 기록하며 10% 돌파를 목전에 뒀다.

세자인 남자 주인공이 몰락한 양반 가문의 여식인 여주인공과 사랑에 빠지고, 그 세자를 강력한 외적이 위협하는 ‘백일의 낭군님’의 스토리 줄거리는 ‘구르미 그린 달빛’ 등 여느 로맨스 사극 드라마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백일의 낭군님’은 극의 주된 배경을 궁 안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마을 ‘송주현’으로 설정해 차별화했다.

송주현에 사는 조선 시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 코믹하게 그려지고 극을 맛깔나게 만드는

조연들의 연기가 빛을 발한다. 이런 송주현에서 남녀 주인공이 사랑에 빠지게 되는 설정은 궁이 주요 배경이었던 기존 로맨스 사극과는 확실히 다르다.

기존에 없던 여자 주인공 캐릭터 호심도 차별화 요소다.

최고령 원녀이지만 억지 결혼 등의 부조리한 상황에는 저항하며 답차게 살아가는 그는 이른바 ‘걸크러시’를 유발한다.

원적이 된 이윤과 혼례를 올린 후 첫날밤을 거부하는 그를 호심이 놀리고 이윤의 웃고름까지 푸는 장면은 기존 사극에서는 볼 수 없었다.

현대극에서는 이 같은 당찬 여성 캐릭터가 자주 등장했지만, 사극에서는 볼 수 없었다는 점에서 호심은 여성 시청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다.

이윤과 호심을 연기하는 배우들의 안정된 연기도 인기 요인이다.

영화 ‘신과 함께’ 등으로 연기력을 인정받은 도경수는 기억을 잃기 전의 까칠한 양세자, 기억을 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남자’인 원적을 자유자재로 넘나든다. 그가 진지하게 호심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는 장면에서는 시청자들의 ‘대리 설렘’을 유발한다.

홍심 역의 남지현도 약삭같은 생활력을 가진 당찬 모습부터 이윤을 향한 애절한 마음까지 자연스럽게 표현한다. 여기에 세자빈이 가진 아이 아버지의 정체라는 미스터리 요소와 권력을 두고 벌어지는 암투가 더해져 극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있다.

TV프로그램

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비밀과 거짓말(재)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테마기행 길 스페셜	35 닥터 365 40 나도 엄마야
9	30 KBS 뉴스	00 차달래 부인의 사랑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내 뒤에 테리우스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동행(재) 50 UHD 한식의 마음(재)	00 오늘의 탐정(재)		00 애니갤러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10 끝까지 사랑(재)	00 12 MBC 뉴스 25 UHD 부자집 아들(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토크쇼 55 특목 보충설계
1	00 사랑의 가족 50 공룡 메가드		30 MBC스포츠 UL 인터넷서널 크라운	55 닥터 365
2	20 드래곤에그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정보스페셜		00 뉴스브리핑
3	00 TV쇼 진품명품(재)	00 자동차부착상 위키 2 30 TV 유치원	30 판다랑	
4	00 사사건건	00 누가 누가 잘하나	00 내 인생의 노래 송원 55 5 MBC 뉴스	00 2018 KPGA 제19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또봇 V 15 보토스 패밀리 30 주간연예수첩	15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제 23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15 생방송 빛날	00 닥터 365 05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55 지식 토크쇼
7	00 KBS 뉴스7 35 한국인의 밥상	50 끝까지 사랑	15 비밀과 거짓말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10 생방송 TV블로그 폼지락
8	25 내일도 맑음	30 글로브24 55 속보이뉴스TV 인사이드	55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10	00 KBS 스페셜 55 UHD 숨터	00 오늘의 탐정	00 내 뒤에 테리우스	00 흥부와외:심장을 훔친 의사들
11	00 KBS 뉴스라인 30 오늘밤 김재동	10 해피투게더 1~2부	10 공복자들 스페셜	10 무학행 1~2부
12	0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50 인간극장 스페셜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25 스포츠 다이어리 40 문화사책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15 두다다쿵
05:30 통일의 길 (잇동네 직업 세계)	12:00 EBS 정오뉴스	17:30 뽀뽀뽀 뽀로로
06:00 한국기행(재)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스페셜	18:00 생방송 토크쇼 보니하니1~5
06:20 세계테마기행	13:00 지식채널e	19:00 레이디버그
07:00 용감한 소방차 레이	13:10 장수의 비밀	19:30 EBS 뉴스
07:30 꼬마버스 타요	13:40 다크 시선	19:50 질문 있는 특강쇼 - 빅뱅
08:00 당동맹 유치원1~2	〈국립묘지,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20:40 세계테마기행
08:30 미니특공대 X	14:30 로보가 폴리	〈자전거 타고! 예과도르 4부 안데스의 미소〉
08:45 랄랄라 뽀우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21:30 한국기행
09:00 두다다쿵	15:15 파프리카	〈가을섬,추차도 4부 고기 낚으러다 가을을 누었네〉
09:30 원더볼즈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21:50 다크 시선
09:4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15:4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22:45 다문화 고부 열전
10:30 한국기행(재)	16: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23:55 EBS 스페이스 공감
10:50 최고의 요리비결 〈간단 차슈와 중화풍 배추겉절이〉	16:30 랄랄라 뽀우(재)	
	16:45 당동맹 유치원1~2(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p>子 36년생 확실한 해결책을 마련하라. 48년생 나중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60년생 의외의 방해자가 보이므로 대비해야겠다. 72년생 명확하지 않으면 관여해서는 안 된다. 84년생 여러 사람들과 관련된다보면 복잡해지므로 스스로 해내는 것이 무방하다. 행운의 숫자 : 57, 92</p>	<p>午 42년생 가까운 이가 문제점의 해결을 호소하라. 54년생 회소성으로 인해서 가치가 급상승하게 된다. 66년생 중대사를 놓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진지하게 상의하고 있는 형상이 보인다. 78년생 적응하고 보자. 90년생 경향이 달라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66, 83</p>
<p>丑 37년생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49년생 소신껏 진행하면 상응하는 결과가 주어지리라. 61년생 시기에 따라서 양상이 달라지겠다. 73년생 반드시 이행해야 차질을 빚지 않으리라. 85년생 정도를 효율적으로 조절하지 않으면 해이해질 수밖에 없다. 행운의 숫자 : 25, 62</p>	<p>未 43년생 앞으로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니 기대해도 된다. 55년생 넉넉하게 마련해두는 것이 알차다. 67년생 주된 것을 위주로 이끌어 간다면 타개 할 수도 있다. 79년생 열과 성을 다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91년생 돈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행운의 숫자 : 28, 75</p>
<p>寅 38년생 절실히 필요한 것이지만 용동이 쉽지 않을 것이다. 50년생 비단 옷 위에 꽃을 더한 격이로다. 62년생 오늘들의 부실함은 미래에 약점의 발미를 제공한다. 74년생 놓치면 후회하게 될 소중한 찬스가 생긴 것이다. 86년생 내부에서부터 기인하고 있다. 행운의 숫자 : 03, 50</p>	<p>申 44년생 성실한 파종과 관리의 절차를 거친 후의 결실은 알차다. 56년생 인식했다면 발상하기 전에 피하는 것이 낫다. 68년생 기존의 노선에서 벗어나면 복잡해진다. 80년생 확실히 이라하면 곤란하다. 92년생 얼마나 치밀하느냐의 여부가 관건이 된다. 행운의 숫자 : 24, 32</p>
<p>卯 39년생 열린 마음으로 대하라. 51년생 모순점이 보일 것이니 지체 없이 타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3년생 강중이 불 것이니 우선 은신처로 피하고 보자. 75년생 형세가 석연치 않다. 87년생 절대로 순간적인 기분에 좌우되어서는 안 되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36, 41</p>	<p>酉 45년생 상대의 속사정은 따로 있다. 57년생 미진한 가운데서 버티라고 고생이 많았다. 69년생 굽어서 부스럼 내지 말고 잠자코 있자. 81년생 무궁무진한 변화의 면모이니 기만하게 대응 하라. 93년생 인식하는 정도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알라. 행운의 숫자 : 17, 39</p>
<p>辰 40년생 해결점을 찾으면서 소강상태를 벗어나는 판세에 놓인다. 52년생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64년생 난관과 유혹이 있다라도 이겨내야 한다. 76년생 정성을 다한다면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이다. 88년생 성취의 문이 열릴 것이다. 행운의 숫자 : 87, 63</p>	<p>戌 34년생 외관에 이끌리면 대세를 가능하기 힘들어질 것이니 실제의 핵심을 보라. 46년생 알찬 결실을 기대 하는 마당에 임하라. 58년생 부하노동하다가 곤란해질 수도 있다. 70년생 말이 씨가 될 수도 있느니라. 82년생 여러 사람의 힘이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23, 69</p>
<p>巳 41년생 하정을 보완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절실하다. 53년생 보류한다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65년생 처음에는 상심할 수도 있지만 머지않아 용기백배 하리라. 77년생 몰라도 될 일을 알게 되어 걱정하라. 89년생 쉽게 결론 내려질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39, 19</p>	<p>亥 35년생 강도에 따라 판가를 나게 되어 있다. 47년생 원칙만 따진다면 합의를 찾기가 힘들다. 59년생 짧은 시간을 활용해도 집중한다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 71년생 특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니라. 83년생 흠결을 보완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43, 02</p>